

# Style 1 조선일보

SEPTEMBER  
2021 vol.225

## DIOR PRESTIGE

LE MICRO-SÉRUM DE ROSE YEUX  
ADVANCED

르 마이크로-세럼 드 로즈 이  
어드밴스드

- NEW -



DIOR.COM

# DIOR



**BVLGARI**  
ROMA

문의. 02 3480 0104



# DIOR

GEM DIOR COLLECTION  
Yellow gold, diamonds and ornamental stones.





HAVE YOU EVER MET A ROBOT?

14



15



DIOR

표지 속 왼쪽 제품은 디올 로즈 드 그랑빌 꽃잎과 열매에서 추출한 227지 마이크로 뉴트라이트 유 효 성분을 함유한 로즈 아이 세럼이다. 11개의 회전식 마이크로 마이크로 펄을 장착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적절한 자극과 마사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오른쪽 제품은 디올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라인인 대표 아이클린 로즈 앰플 세럼으로, 피부 깊숙이 풍부한 영양분을 전달해 피부 재생력을 강화한다. 문의 060-342-9500



22



10

14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 디자인이 우리네 일상을 둘러싼 혁신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로봇공학은 당연히 그 영역에 들어갈뿐더러 다각도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 마땅한 주제다. 로봇은 어느새 우리 곁에 깊이 파고든, 지구촌의 동거인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거쳐 얼마 전 부산에 상륙한 <헬로 로봇, 인간과 기계 그리고 디자인>展은 인공지능(AI)과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받는 코로나19 시국이라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웰메이드 디자인 전시가 부족했던 상황이라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기도 하다.

16 **PRECIOUS BLUE** 청명한 가을 하늘 빛을 닮은 9월 행운의 탄생석, 사파이어 블루.

17 **MODERN TIMES** 클래식과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아우르는 스퀘어 워치.

18 **2021 F/W TREND REPORT** 말레니얼 시대 팝 스타의 의상을 재해석한 스카니 패션부터 공예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스타일, 디자인의 차가운 세련미까지. 여기에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 과감한 스타일링과 지속 가능한 소재를 더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따뜻한 세계관을 보여준다. 2021 F/W 컬렉션, 그 이름 가지 트렌드.

20 **FEEL FREE** 의도된 것과 우연한 것, 기성과 축흥이 뒤섞인 새로운 감흥. 1970년대 뉴욕과 관련된 일대기를 누빈 자유분방하고 유쾌함 넘치는 그래픽 스타일.

21 **GET TOGETHER** 따로 또 같이, 함께하면 더욱 빛을 발하는 커플 스니커즈.

22 **STYLE OF THE SEASON** 강인함과 여성스러움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2021 F/W 뉴욕.

30 **ROSE PLEASURE & RITUAL** 강인한 생명력이 응축된 디올 프레스티지 자의 장미, 로즈 드 그랑빌에 업그레이드된 기술력까지 더해 한층 강력해진 궁극의 로즈 리추얼로 당신을 안내한다.

32 **LIFT UP** 자연 유래 성분으로 누리는 정밀한 스킨케어. 새로운 차원의 안티에이징 경험을 선사해줄 샤넬의 르 리프트 컬렉션.

33 **PERFECT NIGHT RITUAL** 밤사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피부를 더욱더 활성화하는 라프레리 스킨케어 나이트타임 오일.

34 **GREAT WINGS** 당신의 손목에서 날개가 되어줄 IWC 빅 피플렛 워치 퍼페추얼 칼린더.

35 **RAZZLE DAZZLE** "다미아니만의 섬세한 디자인과 오랜 전통성, 장인 정신에 깊이 감동했어요."\_이하늬

36 **LUXE ONE** 좋은 성분에 정성을 더하고, 과학으로 마무리했다. 울거울 보습과 영양을 책임질 프리미엄 크림.

37 **ESPECIALLY FOR YOU** 다가올 명절을 맞아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선물을 소개한다. 집에서 편안하게 고주파 관리로 피부 탄력을 케어해줄 실론 페이스타이트3.0.

38 **EDITOR'S PICK** 계절의 변화에도 끄떡없이 건강한 피부를 위한 아이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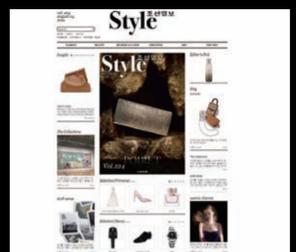
FENDI.COM



FENDI

ROMA

Style **조선일보**  
Issue.225 September 2021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경민 sjm@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분해 - 재판 | 리은 인쇄 | 타라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리서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ROSY LIPS

더플 뷰티가 새롭게 선보이는 루즈 디플 꾸뛰르 립밤. 석류와 무화과, 레드 허비스카스 추출물이 풍부하게 함유된 플로럴 립 케어 포뮬러가 입술을 부드럽게 가꾸주고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한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랑스러운 과일 향은 뎀 내추럴 누드를 중심으로 로즈 우드와 코랄 베이지 등 12가지 내추럴 컬러가 컬렉션을 이끈다. 시그니처 CD 살바 밴드를 두른 미드나잇 블루 케이스에 담아 선보이며, 립밤은 리필 가능하다. 3.5g 4만8천원대. 문의 080-342-9500



# 꽃잎의 약속

가을 짙을 빛깔, 손가락 사이에 피어난 꽃 한 송이. (왼쪽부터 시계 방향) **반클리프 아펠 코스모스 미디엄 모델 링** 꽃잎 4개로 이뤄진 화이트 골드 클러쉬에 0.297캐럿 센터 다이아몬드 1개와 리운드 다이아몬드 3천1백11원대. 문의 1669-1906 **쇼퍼드 임페리얼 컬렉션 링** 이리베스크에서 모노브롬 안은 링으로 핑크 옐로우 다이아몬드 4개 매력적인 광채를 선사한다. 69백82원. 문의 02-6905-3390 **피에레 로즈 아우저 링** 18K 화이트 골드에 세팅한 0.24캐럿의 63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한 송이의 장미를 형상화한 링 5백70만원대. 문의 02-3479-1802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상영민**

# 향기로운 공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공간을 더 향기롭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히노크 스페이스 스프레이** 리얼 곡물 발효 식용 에센셜과 업사이클링 방식으로 제작한 제주 편백수로 만든 살균, 탈취 스프레이. 900ml 3만4천원. 문의 070-4184-1005 **아슬 올루스 아로마틱 룸 스프레이** 지중해 속으로 사탕도 도시 올루스에서 영감을 받아 상그로운 그린과 시트러스 아로마 향을 전하는 룸 스프레이. 100ml 6만2천원. 문의 1800-1987 **바이베드 코튼 포플린 룸 스프레이** 깨끗한 라미에서 영감을 받아 블루 캐비닛과 스위트 마스크가 어우러진 향으로 공간을 향기롭게 채운다. 250ml 15만8천원. 문의 02-3479-1688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상영민**



# ROCK ON

자유분방하고 과감한 매력을 추구하는 클래쉬드 기브드에게 한층 진화한 모습으로 변신했다. 과장된 볼륨감과 강렬한 블랙 스타드로 기존 컬렉션을 재해석한 클래쉬드 인디 리미티드 컬렉션은 신비로운 보랏빛 에메랄드를 기하학 파격적인 느낌을 준다.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대담한 주얼리는 착용자의 몸에서 개성 넘치는 강렬한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INSIGHT

# BIG CREATION

쁘띠아쉬 컬렉션의 핵심은 소재다. 가죽, 실크, 크리스탈 등 에르메스 공방에서 제품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를 유일무이한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킨다. 자유로운 공간 감각도는 뿌띠아쉬 공방에서 신선한 품격을 입은 제품 중 일부는 파리 세브르 거리에 있는 에르메스 매장을 비롯해 한국 에르메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문의 02-542-6622



# THE BANGLES

작지만 강한 매력을 발산하는 벨클. (위부터) 구조적인 디테일을 강조한 메탈 소재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200-2700, chanel.com. 수평 픽셀 프린트를 입힌 에펠 브레이슬릿 1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신그로운 그린 에펠 벨클을 더한 골드 브레이슬릿 2백28만원 **보에지 베네테**. 문의 02-3438-7601. 볼드한 블랙 송이까지 주걱 벨클을 브라스 모티브로 멋지게 장식한 쏘 LV 벨클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이유미**



# NEW ELEGANCE

블리에서는 위치를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모델 초창기 정신을 반영한 우아한 다이아몬드 세팅 이워 마카에 살바 다이얼과 스틸 케이스를 더한 BB 위치를 선보인다. 도시적이며 모던한 디자인과 타일라스한 면모가 이탈리아 포르토타나 카피르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5백만원대. 문의 02-2066-0170

# SEASONALLY LIMITED

아시아의 격자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패키지 디자인을 입은 로얄살루트의 추석 한정판이 위 스키 애호가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동양의 미를 살린 디자인으로 지난 설 연휴에 선보인 로얄살루트 21년 탄생 드라곤 에디션에 이어 나온 로얄살루트 21년 레오 패키지 에디션 (Royal Salute 21YO LEO Package Edition)이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위해 탄생한 로얄 살루트 브랜드를 상징하는 레오는 별자리로 사자자리 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 이 역시 왕의 별자리로 통한다. 이번 에디션은 특히 나만의 감각적인 커스터마이징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만들 수 있다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패키지 내부에 선물 받는 이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가격은 20만 원대(700ml 기준).



# 가을 여운

간조해진 가을 공기 정돈이 반짝 반짝 민망 강렬한 첫 향을 내는 스파이시한 매력을 지닌 이 향수는 모던적이고 활기찬 여행의 도시 콘스탄티노플에서 영감을 얻었다. 코끝을 톡 쏘는 핑크 페퍼 감각을 깨우고, 리벤드와 아이리스 꽃에 착신 장미가 우아하고 깊은 향을 선사한다. 가을에 파퓰러와 이끼가 관능적인 여운을 남기는,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향기. 100ml 33만3천원. 문의 080-363-5454



# GRAFFITI VIBE

2018년 론칭한 후 많은 사랑을 받아온 알렉산더 맥퀸의 아이코닉한 스타디움 스텔 백을 2021 맥퀸 그래픽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클래식하고 구조적인 형태와 4면 디테일, 길이 조절 가능한 체인 스트랩 등 맥퀸의 시그니처 주얼 사철 특유의 실루엣은 유지하면서 그래픽을 더해 모던하고 유쾌하게 해석해, 좀 더 젊고 쿨한 감성으로 연출 가능하다. 2백85만원. 문의 02-6905-3472





영문 가죽 크롭트 패딩 재킷 5백만원대 토즈.

CHRISTIAN DIOR

리베라 라켓과 볼 장갑선 가격 미정 다들.

아미티 키스와 키드 홀더, 미니 지갑을 다룬 팔링 벨트 백 가격 미정 샤넬.

사브리나 초세린 에디션 아미티

패션을 입은 로 스니커즈 85만원 지미추.

니에 스티프 스니커즈 28만원 프라다.

투 오브 하트 데스 브레일 슬릿 9백만원 글든듀.

상인 로고 이어클립 가격 미정 프라다.

# for her Selection

트랙과 매트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패션 웨어.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park kun woo



데님 볼 캡 25만9천원 아자벨 미랑.



비타민 핑크 마스크 42만원 루이 비통.



86만 5천원대 초세린 뉴-케이스 워치 프라다에서 가격 미정 프라다.



더블 롤러 7만8천원 토크레온.



핑크 그레이터 선글라스 40만5천원 알렉산더 맥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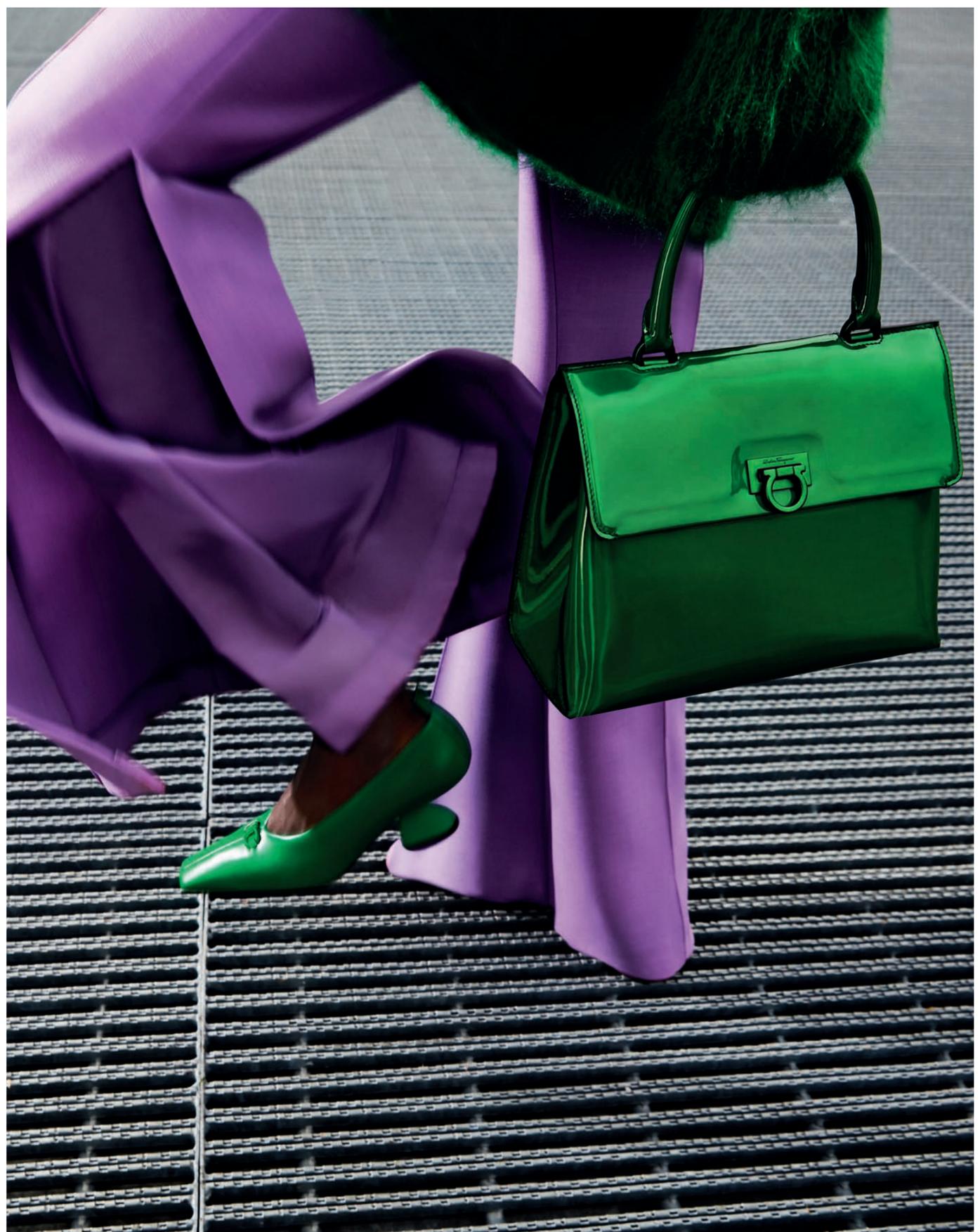


네이비 트랙 팬츠 1백29만원 아자벨.



카트 스니퍼트 스니커즈 71만 미정 샤넬.

- 토즈 02-3438-6002
- 다들 02-3480-0104
- 샤넬 080-200-2709
- 프라다 1577-3472
- 글든듀 1588-6576
- 지미추 02-3443-9469
- 구찌 02-3452-1921
- 아자벨 미랑 02-516-3737
- 프라다 02-3218-5331
- 클루레온 070-4913-3722
- 마우마우 02-3218-5320
-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 셀만스 02-549-6631
- 테크홀이어 02-548-8020
- 루이 비통 02-3432-1854



A Future Together  
Directed by Wim Wenders  
Milan, January 2021  
Screening now: Ferragamo.com

Salvatore Ferragamo



〈Hello, Robot.〉展

#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

디자인이 우리네 일상을 둘러싼 혁신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로봇공학은 당연히 그 영역에 들어갈뿐더러 다각도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 미망한 주제다. 로봇은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캐릭터가 아니라 어느새 우리 곁에 깊이 파고든, 지구촌의 '동거인'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거쳐 얼마 전 부산에 상륙한 〈헬로 로봇, 인간과 기계 그리고 디자인〉展은 인공지능(AI)과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받는 코로나19 시국이라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다. 인류의 불가피한 동행자가 된 로봇과 인간의 조화에 대해 여러모로 궁금이 생각해보고, 인간의 정체성 자체에 대해 곱씹어보게 하는 콘텐츠의 향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웰메이드 디자인 전시가 부족했던 상황이라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기도 하다(오는 10월 31일까지 무료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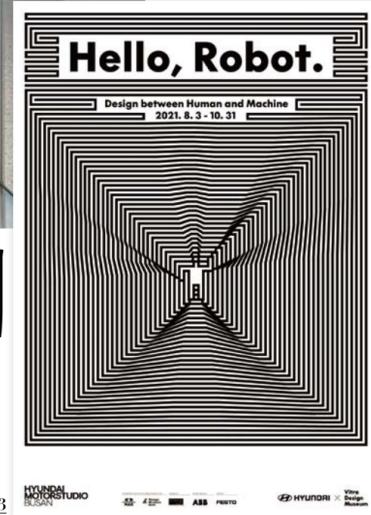


3

“결국 인간은 기계도 의식이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도약을 하고 싶다. 기계가 인간 수준의 능력을 갖추는 순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믿음이다.”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

기계들의 지적 능력이 인간의 그것을 뛰어넘는 단계, 다시 말해 기술적 특이점에 관련된 이론의 권위자인 미래학자이자 발명가, 기업가 레이 커즈와일. 그가 주장한 대로 특이점이 도래하는 시점이 2045년 전후에 찾아와 궁극적으로 '디지털 불멸'까지 가능할지 여부를 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는 눈부시게 빠르고 우리 삶은 그로 인해 아주 많은 변화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마치 영화에서처럼 고도의 지적 능력은 물론이고 겉모습까지 그럴듯한 로봇이 다양하게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과학 저술가 케빈 캘리의 말처럼 로봇은 이미 조용히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조만간 좀 더 시끄럽고 영리한 녀석들이 나타나 인간의 삶을 흔들어대는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8월 3일 부산 망미동의 복합 문화 공간 F1963 내에 자리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막을 올린 〈헬로 로봇, 인간과 기계 그리고 디자인〉展은 이처럼 현대사회가 직면한 로봇 기술에 얽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다. 2백여 점의 다양한 볼거리를 펼쳐놓은 이 전시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과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비트라(Vitra)'는 유서 깊은 스위스의 명품 가구 브랜드로, 스위스 바젤과 멀지 않은 독일 바일 암 라인(Weil am Rhein)에 디자인·건축계 성지와의도 같은 복합 공간 비트라 캠퍼스를 두고 있다. 캠퍼스 내에 자리한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은 스타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것으로, 가구 컬렉션 위주의 전시에서 벗어나 건축, 예술, 일상 문화와 디자인의 관계, 미래 기술과 모빌리티 등의 주제로 진지하게 다루었다. 이 중 오스트리아의 디자인 뮤지엄 MAK 등과 손잡고 2017년 선보인 〈Hello, Robot.〉 전시는 유럽 여러 도시를 거쳐 순회전으로 꾸러지다가 마침내 부산에 도착했다. 로봇과 인간의 관계에 관련된 14개 질문을 던지는 4개의 비트라 주제관에 더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등 첨단 로봇 기술 투자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선 현대자동차의 로봇 기술에 엿볼 수 있는 2개관이 추가됐다. 로버트 태권(가 존재감 있게 자리 잡은 전시장 입구에 내건 첫 번째 질문, '로봇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1 지난 8월 3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막을 올린 〈헬로 로봇, 인간과 기계 그리고 디자인〉展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과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비트라(Vitra)'는 유서 깊은 스위스의 명품 가구 브랜드로, 스위스 바젤과 멀지 않은 독일 바일 암 라인(Weil am Rhein)에 디자인·건축계 성지와의도 같은 복합 공간 비트라 캠퍼스를 두고 있다. 캠퍼스 내에 자리한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은 스타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것으로, 가구 컬렉션 위주의 전시에서 벗어나 건축, 예술, 일상 문화와 디자인의 관계, 미래 기술과 모빌리티 등의 주제로 진지하게 다루었다. 이 중 오스트리아의 디자인 뮤지엄 MAK 등과 손잡고 2017년 선보인 〈Hello, Robot.〉 전시는 유럽 여러 도시를 거쳐 순회전으로 꾸러지다가 마침내 부산에 도착했다. 로봇과 인간의 관계에 관련된 14개 질문을 던지는 4개의 비트라 주제관에 더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등 첨단 로봇 기술 투자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선 현대자동차의 로봇 기술에 엿볼 수 있는 2개관이 추가됐다. 로버트 태권(가 존재감 있게 자리 잡은 전시장 입구에 내건 첫 번째 질문, '로봇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2

## #Room 1\_과학과 상상(Science and Fiction)

로봇에 대한 첫 경향은 무엇입니까?/우리는 정말로 로봇이 필요할까요? /로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로봇은 우리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적일까요?

사실 '필요성'을 운운하는 건 뒤늦은 질문일 수 있다. 현대인 대다수는 '로봇'이라고 하면 〈스타워즈〉의 R2D2나 〈월E〉의 월E 같은 영화 속 캐릭터를 떠올릴 정도로 대중문화가 선사한 이미지에 빠져 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는 이미 로봇이 도처에 스며들어 있다. 1관에서 전시되어 있듯, 드론에서 셀프 계산대, 나노 로봇, 로봇 청소기, 쇼핑용 챗봇 등 아주 다양한 로봇과 로봇 시스템에 둘러싸여 있다. 레이 커즈와일이 정의한 '의식을 가진 뇌로서의 마음'을 품은 초지능 로봇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한것을지언정 말이다. 전시 큐레이터는 불과 10년여 전만 해도 '인간에게 정말로 스마트폰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부분 '아니'라는 답을 했다고 지적한다. 1관에 전시된 에릭 피커스키의 사진 작품 시리즈 '계계'(2014)가 보여주듯 우리는 이미 기술 중독의 현실을 살고 있다. 스마트 기기 부재 시 인간이 지도 못르게 취하는 행동을 포착해낸 이 작품에서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빈손에도 여전히 '폰'을 잡고 있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공허한 시선을 보이는 모습이 섬뜩한 느낌이 들게 한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된 것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아바타' 같은 각자의 로봇이 생길지 누가 알겠는가?

## #Room 2\_업무 프로그램(Programmed for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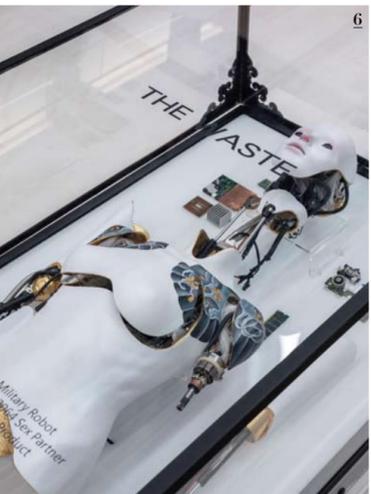
로봇이 여러분의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산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로봇의 부상〉의 저자 마틴 포드는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의 공생 관계가 1970년대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시반세기에 해당하는 미국 경제의 황금기에는 이런 경향이 뚜렷해, 새로운 일자리는 과거의 직종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수준 높은 기술을 요구했고 임금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는 최소 10년간 새로운 일자리가 전혀 창출되지 않았고, 이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3D 프린팅 기술로 원하는 형태와 소재의 가구를 만들고, 산업로봇을 활용해 도시를 가로지르는 다리까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실제로 2관에서 선보인 작업으로, 요리스 라린의 암스테르담을 가로지르는 강철 다리 건설 작업인 'MX3D' 다리 프로젝트가 있다) 기계 자체가 근로자로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저 직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야만 하는 걸까? 심지어 예술가나 영화감독처럼 창조적인 일을 하는 영역에서도 '로봇 대체가 가능할까?' 여러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지만, 이 지점에서 케빈 캘리의 조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로봇이 우리 일을 떠맡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새로운 일을 꾸꾸자!"

## #Room 3\_친구와 조력자(Friend and Helper)

스마트 도우미에게 얼마나 의존하길 원하십니까?/로봇의 보살핌을 받길 원하십니까? /물건이 감정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존재의 죽음과 환생을 믿으십니까?

'리얼돌'이나 '섹스 로봇' 같은 상품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우리의 일상은 이미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간단하게는 낯선 여행길에서 안내를 받고, 생일 알람을 설정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는 일상 풍경을 생각해보라. 일례로 최근 희소식을 전한 도쿄올림픽의 양궁 선수들도 현대차그룹의 인공지능 비전 기술로 자세와 약점을 분석해주는 'AI 코치의 도움을 받았다. 강도를 좀 높여보자면 로봇은 인형처럼 생긴 가짜 베이비시터의 모습을 띠 수 있다. 또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같이 쇼핑하고, 노인과 환자를 돌보기도 한다. 극단의 예로는 3관에서 소개한 덴트의 영상 작품 '생애 말기 돌봄 기계'(2012)를 들 수 있는데, 삶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상처받기 쉽고 개인적인 경험인 '죽음의 순간'에도 자동화에 의존하는 사회의 단면을 그린다. 사망 직전 환자 곁에서 AI가 속삭인다. "나는 마지막 순간 로봇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은 지금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지구를 떠나더라도 지인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보듬는 AI의 손길 속에서 환자는 미소를 띠 채 세상을 떠난다(AI의 인간다운 행위에



6



7



8



9



10



11

6 〈헬로 로봇, 인간과 기계 그리고 디자인〉展의 전시 3관 친구와 조력자(Friend and Helper) 설치 작품 중 하나인 '젠뎀(Zan-Lun Huang)의 폐기물(The Waste)'(2011). 고품질이 되어 폐기물 운령에 처해진 교채나 재료가 가능한 로봇의 몸체를 통해 기술 사회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7 스테판 보그너, 필립 슈미트, 요나 포르트, 분유 야기기와 불꽃 등이 가능한 가형용 로봇을 상상한 'Raising Robotic Natives'(2016) 프로젝트. 3관 전시 작품. 8 전시 4관 융합(Becoming One)에 전시된 필립 비슬리의 'Hylozoic Grove'(2016). 천장에서 내려오는 하얀 것들 같은 작품은 타자에 반응하는 설치 작품이다. 9 전시 5관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자동차는 로봇공학의 강자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 사진 속 로봇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비데인 '샤시 로봇 달이(DALI)'. 10 지난해, 부산의 명신 망미 복합 문화공간 F1963에 디자인의 향에 초점을 맞춘 공간으로 문을 연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전시장 입구로 향하는 1층의 대형 LED 벽에 설치된 디자인 아트 그룹 'Universal Everything'의 영상 작품이 나온다. Photo by SY Ko 11 6관 전시의 마지막 공간인 6관에서는 현대자동차의 로보틱스랩에서 개발한 다양한 로봇을 증강현실(AR) 기술로 재해석한 작품 등을 볼 수 있다. 6~9, 11 Photo by 신영섭

## #Room 4\_융합(Becoming One)

로봇 안에 살 수 있을까요?/당신은 본래의 타고난 것보다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로봇이 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까요?

타이틀 소재의 다리를 박는다면 그저 기계적인 보조 장치지만, 그 안에 정교한 지능 칩이 심어져 있어 내 몸의 다른 부위까지 고도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준다면? 4관에서 소개한 '사이보그 형사' 가제트처럼 말이다. 심신이 무리만 가지 않는다면 노쇠한 육체에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시도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더 나아가 뇌의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자연스럽게 '로봇이 내 안에 사는 건지, 내가 로봇 안에 사는 건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것 같다. 주인공이 죽기 전에 자신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해 다시 살아가는 내용을 담은 영화 〈트랜센던스〉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바로 레이 커즈와일이 말한 '디지털 불멸', '디지털 영생이 가능해지는 것'이라). 어쨌거나, 현재로서 확실한 건 인간과 로봇의 구분이 모호해질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면 신체적 장애에도 인공지능과 삽입형 칩의 도움으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해낼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반면, 이렇듯 초연결·초지능의 시대에는 기술 통제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무시무시한 '빅브라더'의 감시가 횡행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변화만이 유일한 확실성'이라는 이 시대에 AI의 패러다임이 어느 정도로 진화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여기에는 결국 그 흐름을 이룰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시대를 앞서간 해안을 지녔던 20세기의 지성 리처드 버크민스터 풀러(Richard Buckminster Fuller)가 제시한 인간의 '총체적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게 하기도 한다. 풀러는 지구가 일종의 우주선이고, 인간이 보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우주선 지구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1969년에 내기도 했던 인물인데, 예술가, 발명가, 기계공, 경제 전문가, 전략가를 하나로 통합한 존재로서 모든 정보를 소화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폭넓은 관점의) 디자이너에게 주문했다. 물론 그 고도의 지적 자산을 인간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서 말이다. 글 **고성연**



# precious blue

청명한 가을 하늘 빛을 담은  
9월 행운의 탄생석, 사파이어 블루.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쇼세 조세핀 아그네스 앙투아네트 링 플라타늄에 2.96캐럿 페어 컷 사파이어를 올리고, 다이아몬드를 티파니 모양으로 세팅했다. 조세핀 황후의 왕관을 연상시키는 기품 있는 주얼리 피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597 다음 티파니 라 마니 드 다음 프레스스 지름 21mm 다이얼에 다이아몬드를 수놓고, 베젤과 브레이슬릿에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하이 주얼리 시계 가격 미정. 문의 02-3480-0104 그라프 카보숑 사파이어 링 15.88캐럿 카보숑 컷 사파이어를 중심으로 총 6.47캐럿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수놓아 화려함이 절정을 이루는 하이 주얼리 링 가격 미정. 문의 02-2256-6810 티파니 탄 자이트 & 사파이어 & 다이아몬드 드롭 아워링 22.66캐럿의 에메랄드 컷 탄자이트 주위에 우아한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와 라운드 컷 사파이어를 세팅한 드롭 아워링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파이제 산호이트 링 화이트 골드 밴드에 총 1.33캐럿의 1백2개 브릴리언트 컷 블루 사파이어와 0.21캐럿의 17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한 링 1천4백만원대. 문의 02-3479-1802 다이아 니 마른가라 링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 매혹적인 디자인을 형성한 주얼리 링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볼가리 다바스 드릴 네크리스 부채꼴의 유려한 곡선을 따라 페어 컷 사파이어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아름다운 오픈워크 네크리스 3천백만원대. 문의 02-2066-0170 에디터 아우이

# modern times

클래식과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아우르는 스퀘어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티파니 1837 메이커스 워치 정사각 형태를 이루는 22mm 스틸 케이스에 담긴 그 레이 다이얼과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인덱스의 앙상블이 매력적인 모던 클래식 피스. 은은한 광택을 지닌 약어 가죽 스트랩으로 기품 있게 마무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00 에거 로콜트르 리베르소 클래식 미 디엄 듀에트 2개의 다이얼을 갖춘, 매혹을 상징하는 티파니 스. 신비로운 블루 색조의 이터널로에서 영감을 얻은 직선으로 극도의 세련미를 자랑한다. 최대 8시간 용량을 보증하는 에거 로콜트르 968A로 구동한다. 1천8백90만원. 문의 1670-1833 부세르 리콜레 워치 미디움 바티컬 고드름 모티브와 카보숑 컷 사파이어 등 매혹 특유의 요소로 미감을 채운 아이코닉 피스. 다이얼 위 4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로 장식된 플러그 돌 보이다. 8백만원대. 문의 02-3213-2246 론진 플래티너 20.8x32mm 케이스를 따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46개를 두른 케이스와 화이트 가죽 스트랩이 순수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그려준다. 빅 스위치 시스템으로 칼리 스트랩을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다. 수심 30m 생활 방수 기능을 갖춘 실용적인 아워링. 4백10만원. 문의 02-3479-1940 에르메스 난투겟 줘메 드 다이얼 케이스 위에 총 0.21캐럿의 65개 다이아몬드를 흠뻑린 세팅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모던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앙커 체인 모티브 케이스에 메트 에르메스 스틸 투어 악어 가죽 스트랩으로 품격 있게 마무리한 티파니이다. 8백만원대. 문의 02-542-6622 샤넬 워치 보이프렌드 트윈드 인덱스를 과감하게 생략한 블랙 다이얼과 아이코닉한 트윈드 패턴을 적용한 스틸 브레이슬릿이 강렬한 매력을 발하는 아워링. 방울 광택을 분문 팔각 형태 베젤을 따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63개를 우아하게 장식했다. 가격 미정. 문의 080-200-2700. chanel.com 에디터 아우이

에디터 아우이

# 2021 F/W Trend Report

밀리터리 시대 팝 스타의 의상을 재해석한 스키니 패션부터 공예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전통적인 스타일, 디지털 이미지의 차가운 세련미까지. 여기에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 과감한 스타일링과 지속 가능한 소재를 더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따뜻한 세계관을 보여준다. 2021 F/W 컬렉션, 그 이후 가지 트렌드.

## trend 1. Dynamic Red

이번 컬렉션에서 코로나 일시 정지된 일상을 보내는 디자이너들은 현실 도피와 낙관주의가 공존하는 다소 절제된 디자인의 '집콕' 패션을 대거 선보였다. 옷의 실루엣이나 디자인에서는 미니멀하고 웨어러블한 스타일을 선보이되 강렬한 컬러를 활용해 낙관적인 무드를 연출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레드라는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컬러라고 할 수 있다.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의 레드 슈트와 여성의 파워풀한 면모를 강조한 버버리부터 레디 소재를 사용해 심플한 슬립 드레스에 포인트를 더한 알리아, 마치 흰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같이 레드를 활용한 발렌티노까지, 올가을에는 레드 컬러를 마음껏 즐겨볼 것.

## trend 2. Power Women, Power Shoulder

과장되고 과감한 룩으로 여성의 강인함과 당당함을 강조한 이번 컬렉션. 버버리에서는 직각으로 솟아오른 스퀘어 숄더 재킷으로 페미닌한 오피스 룩을 선보였으며, 로에베, 알렉산더 맥퀸, 루이 비통 등 하나같이 어깨를 화려하게 부풀린 오버사이즈 룩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의 특징은 어깨는 강조되되 허리 라인은 코르셋으로 조이거나 아래로 갈수록 슬림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의 의상으로 파워 숄더 라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어깨는 무겁게, 발걸음은 가볍게. 바로 이번 컬렉션 트렌드의 키포인트다.

## trend 3. We Love Animals!

환경문제와 동물 보호, 비건 트렌드로 많은 패션 브랜드에서 페이크 퍼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지 오래다. 이번 컬렉션 역시 페이크 퍼로 가을 트렌드 룩을 완성한 브랜드들이 눈에 띈다. 돌체앤가바나에서는 깃털처럼 흩날리는 실버 퍼를 활용해 미래향적이고 사이버틱한 무드를 선보이거나 글리터리한 느낌을 더해 색다른 페이크 퍼 룩을 완성했다. 프라다, 스포트맥스 역시 페이크 퍼를 사용한 다채로운 코트를 선보였다. 페이크 파이니만큼 한껏 풍성하고 화려해진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그런지한 느낌을 더한 것 역시 특징.

## trend 4. Blooming Flowers

이번 시즌 린넨과 밀라노에 이어 파리 패션 위크까지 섬세하고 우아한 감성의 플라워 패턴이 만개했다. 전반적으로 섬세한 지수와 다양한 컬러의 플라워 패턴을 적용한 사벨부터 페이즐리 문양을 더한 성숙한 분위기의 플로럴 원피스를 선보인 이자벨 마랑, 화려하게 피어난 꽃과 같은 디자인의 드레스 피스를 보여준 조르지오 아르마니 프리메 소까지, 다만 여러이러한 느낌보다는 우아하고 당당한 여성을 꽃으로 승화

Power Women, Power Shoulder  
LOUIS VUITTON

Power Women, Power Shoulder  
ALEXANDER MCQUEEN

Blooming Flowers  
GIORGIO ARMANI

Blooming Flowers  
CHANEL

Glittery & Sparkling Like Pop Stars  
LOUIS VUITTON

Glittery & Sparkling Like Pop Stars  
GUCCI

Pleats, Please  
MAX MARA

Casual Paddings  
GIVENCHY

Casual Paddings  
MIU MIU

One-Piece Wonders  
SALVATORE FERRAGAMO

Glam Fringe  
FENDI

한 듯한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옷이 아니라도 눈길을 사로잡는 플라워 모티브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준다면 트렌디하게 올 가을을 보낼 수 있을 것.

## trend 5. Glittery & Sparkling Like Pop Stars

2000년대 브리트니 스피어스, 마돈나, 머라이어 캐리의 불링블링한 스타일링과 반짝반짝 빛나는 새틴 소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드리스 반 노튼은 빈티지한 글리츠를 모토로 찬란적인 컬렉션 콘셉트를 완성했으며, 지방시, 프라다, 구찌 역시 글리터리한 소재의 원피스를 선보였다. 전반적으로 실루엣은 과하지 않지만 글리터 소재를 입혀 화려함을 강조한 스타일이 다수를 이루었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치 팝 스타처럼 무대에 오를 듯한 특별함을 더할 수 있도록 한다. 글리터 소재 룩으로 2000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빈티지한 감성도 만날 수 있다.

## trend 6. Casual Paddings

이번 컬렉션에서 유독 눈에 띄는 아우터웨어는 패딩이다. 코트를 제외한 캐주얼 아우터군에서 가장 흔히 눈에 띄는 보머 재킷보다 큰 비율을 차지한다.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디자이너들의 욕망이 패딩 아우터로 발현된 것. 미우미우는 스키장의 설원을 무대로 쇼를 펼쳤고, 톰 브라운은 눈 쌓인 산 정상에서 컬렉션 비주얼을 완성했다. 이 외에도 루이 비통, 아크리스, 라프 시몬스 등에서 다양한 컬러나 디자인의 패딩 아우터는 물론 패딩 소재의 팬츠, 백 등 다양한 액세서리까지 선보이며 올겨울 패딩 대유행을 예고했다.

## trend 7. One-Piece Wonders

캣우먼이 돌아왔다. 톰 포드와 리란 스미스, 프라다까지, 올가을 컬렉션에서는 과감하면서 대담한 패턴의 다양한 캣 수트를 볼 수 있다. 소재 역시 다양하다. 실바토레 페라가모와 톰 포드는 몸이 비치는 시스루 룩을 완성했고, 매이지 월렌은 스웬스웨트 느낌의 매끈한 소재와 대비되는 사랑스러운 패턴으로 미래적이면서도 기묘한 느낌을 지어냈다. 몸매에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다. 오토링거 컬렉션에서는 오버사이즈 모달을 통해 어떤 몸이든 아름답게 연출 가능하며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도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독특한 패턴의 니트 수트를 입고 걸음은 완전히 다른 느낌의 시어한 원피스를 매치한 프라다의 스타일링을 참고할 것.

## trend 8. Glam Fringe

각종 환경적 이슈로 퍼 프리 선언을 한 디자이너들이 늘어나면서 프린지 디테일을 활용해 글램하고 그런지한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컬렉션 트렌드가 되었다. 밀라노에 이어 파리 패션 위크까지 프린지 풍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프린지가 런웨이를 휩쓸었다. 끌로에는 니트 원피스부터 백까지 거의 모든 룩에 프린지 디테일을 더해 빈티지하고 히피스러운 룩을 연출했으며, 이자벨 마랑 또한 코트나 의상 밑단 뿐 아니라 핸드백과 부츠에까지 프린지 디테일의 향연을 이뤘다. 에르메스와 디올 역시 페미닌한 드레스 끝단에 약간의 프린지 디테일을 주어 우아한 변주를 보여주었다.

## trend 9. Pleats, Please

코로나로 근무지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포멀과 캐주얼, 홈웨어와 오피스웨어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많은 컬렉션에서는 재킷을 걸치면 워크 룩으로, 티셔츠를 매치하면 레저 룩으로 쉽게 변신 가능해 실용성 높은 플리츠스커트를 활용했다. 로로피아나는 컬렉션 콘셉트로 플리츠스커트를 내세웠으며 3.1 필립 린과 플랜 C 역시 플리츠스커트에 수트 재킷을 매치해 포멀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동시에 표현했다. 플리츠스커트의 장점은 패턴이나 기장에 따라 때론 과감하게 포인트를 줄 수도, 웨어러블하게 연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올가을엔 플리츠스커트 하나쯤 장만해 두어야 할 듯하다. 에디터 성정민

# feel free

의도된 것과 우연한 것, 기성과 즉흥이 뒤섞인 새로운 감흥. 1970년대 뉴욕과 런던 일대를 누빈 자유분방하고 유패함 넘치는 그래피티 스타일.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부터 시계 방향) 강렬한 프린트가 화려한 홀 그래핀 가죽 1460 CBGB 부츠 21만원 **더터 마틴**, 문의 070-4821-0227, 물감을 흠뻑인 듯한 모티프가 재미있는 칙 70 로 스니커즈 92만9천원 **캔버스**, 문의 080-987-0182, 다양한 패턴을 워트 있게 그려 넣은 토즈 그래피티 캠퍼스 벨트 백 1백70만원 **토즈**, 문의 02-3448-6008, 국내 탑 아티스트 SAM BY PEN의 작품을 입은 비세토스 보스탄백 95만5천원 **MCM**, 문의 02-540-1404, 캔버스 소재에 직접 펜으로 그린 듯한 포르토퍼노 라이트 스니커즈 가격 미정 **블랙앤가바나**, 문의 02-3442-6888, 화이트 아세티트 프레임에 블랙 레터링을 더한 맥린 그래피티 탠트드 선글라스 40만5천원 **알렉산더 맥퀸**, 문의 02-6905-3472, 블랙 레더에 다채로운 색감을 그려 넣은 펜디 백 백 2백만 원대 **펜디**, 문의 02-6905-3717 에디터 **이주이**

0151818181

(우부터) 상함에 관계없이 캐주얼, 정장 등 어느 룩에나 매치하기 좋은 심플한 화이트 스니커즈는 커풀로 연출하기에도 좋다. 룩이 다른 날에도 화이트 스니커즈 하나로 통일감을 주기에다 인성맞춤이다. 캔버스 소재로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 화이트 스니커즈 88만원 **자황시**, 문의 02-546-2790 유즈드 디자인에 양각한 시그니처 로고가 인상적인 스니커즈 가격 미정 **생로망 바이 안토니 바카렐로**, 문의 02-545-2250



(우부터) 크고 투박한 디자인의 스니커즈는 심플한 의상에 매치하면 산뜻 해-판으로도 포인트가 되어 패셔너블한 느낌을 준다. 커풀 아이템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좋다. 굽 높이가 있어 폭신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길이 조절이 가능한 엘라스틱 레이스를 더한 슬림은 스니커즈 1백만 원대 **펜디**, 문의 02-514-0652, 시그니처 스타드를 더한 디자인으로, 미드, 두 가지 톤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스니커즈 각 97만원, 1백12만원 **발벤토노 가바나**, 문의 02-6905-3610

# Get together

따로 또 같이, 함께하면 더욱 빛을 발하는 키플 스니커즈.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브랜드의 시그니처 로고를 매치한 스니커즈는 커풀 아이템답게 귀엽고 영한 느낌을 준다. 구찌판의 GG 로고를 프린트한 캔버스 소재의 로툼 스니커즈가 제격. 일반 캔버스 느낌의 클래식한 세이프에 로고 패턴과 사이에 있는 구찌 해마티지를 담은 레드와 그린 컬러 포인트가 특별한 감성을 더한다. 스니커즈 하나로 패셔너블한 느낌을 보여줄 수 있을 듯, 86만원 **구찌**, 문의 02-3452-1921



캘리나 디자인에 변주를 주면 커풀 스니커즈를 좀 더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다. PLAY 캠퍼스 캔버스 키플 70 스니커즈는 캔버스의 아이코닉한 칙 70 실루엣에 캠퍼스만의 독특한 하트-엔-아이 로고를 새겨 재미를 더했다. 로툼, 하이톱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시그니처 룩을 연출할 수 있다. 19만8천원 **PLAY 캠퍼스**, 문의 1599-0007 에디터 **성정민**

브라운 나파 레더 코트  
가격 미정 보타가 해네라.

블랙 벨벳 재킷 3백90만원,  
그레이 오들린 셔츠 1백56만원,  
블랙 벨벳 하프 팬츠 2백만원  
모두 구찌.

# STYLE OF THE SEASON

강인함과 여성스러움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2021 F/W 뉴욕.  
photographed by **yoon ji yong**



핀타지올 트워드 재킷,  
올 트워드 아너 재킷, 코튼 트릴  
팬츠, 그로그링 소재 신발,  
메탈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사넬.



블랙 컬러 다운 베스트,  
도트 패턴 실크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스트라이프 실크 셔츠  
3백만원대, 그레이 울 스커트  
가격 미정, 골드 이어링  
가격 미정 모두 **렌다**.



네이버 재킷, 옐로 패턴  
터틀넥, 스카이블루 니트 등,  
네이버 스커트, 삭스 부츠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이방기르드한 오버사이즈 코트  
 8백18만원, 그레이 체크 팬츠  
 1백38만원, 웨지 앵글부츠 가격 미정,  
 블랙 큐브 이어링 가격 미정, 살바  
 네크리스 가격 미정 모두 **자황시**.



블랙 & 화이트 컬러 트위드 재킷,  
 그레이 니트 터틀넥,  
 블랙 & 화이트 컬러 트위드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다음**.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이영  
 모델 Maga, Josie, Julia Boncoddio,  
 Yulia Musieichuk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에르메스 02-544-7722  
 사헬 080-200-2700  
 보타가 베네텐 02-3438-7601  
 프리다 02-3218-5331  
 구찌 02-3452-1921  
 다음 02-3480-0104  
 팬디 02-514-0652  
 자황시 02-546-2790

# Rose Pleasure & Ritual

디올 프레스티지의 장미, 로즈 드 그랑빌은 특별하다. 최상의 스킨케어 위해 오랜 시간 수천번의 임상, 수만 종의 장미 연구를 거쳐 탄생했기 때문. 여기 강인한 생명력이 응축된 로즈 드 그랑빌에 업그레이드된 기술력까지 더해 한층 강력해진 궁극의 로즈 리추얼로 당신을 안내한다.



디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필 드 로즈 어드밴스드 세럼 50ml 42만9천원  
디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세럼 드 로즈 어드밴스드 20ml 25만원  
모두 디올 뷰티.



## 로즈 드 그랑빌의 에너지가 담긴 궁극의 로즈 리추얼

나이가 들수록 계절이 변화할 때마다 피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가을은 뜨거운 태양에 혹사당한 피부를 잘 토닥이는 동시에 갑자기 건조해진 공기와 찬 바람에 맞설 수 있도록 탄탄하게 가꿔야 할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때 화장대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은 오랜 기술력과 노하우, 고귀한 원료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무장한 스킨케어 제품이다. 특히 얼마나 특별한 원료를 사용했는지, 그 원료의 효능을 피부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적용했는지가 제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 디올 프레스티지 컬렉션은 이 요소를 모두 갖춘 프리미엄 스킨케어 라인이다. 혹독한 환경을 이기고 피어난 로즈 드 그랑빌이 지닌 무한한 생명력과 뛰어난 효과를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구 및 탐구한 결과 꽃잎과 열매, 줄기까지, 각각에 맞는 방식을 통해 강력한 추출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장미의 꽃과 열매뿐 아니라 줄기에서 추출한 응축된 영양 성분이 디올 사이언스의 기술력으로 업그레이드되어 피부 깊숙이 작용하는 것뿐 아니라 특별한 애플리케이션, 각각적인 텍스처와 만나 피부에 강력한 힘과 리바이탈라이징 효과를 선사하는 것이 디올 프레스티지 제품들의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출시한 디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세럼 드 로즈 어드밴스드는 기존 10개의 세라믹 마이크로-필에 11번째 필을 더한 독자적 애플리케이션으로 프리미엄급 아이 케어를 선사한다. 여기에 1만여 개의 로즈 마이크로-필(30ml 한 병에 담긴 마이크로-필) 한 알 한 알에 프리미엄급 로즈 바이탈 수액을 담은 디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필 드 로즈 어드밴스드 세럼까지 더하면 울거울 피부에 강력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더 건강하고 매끈한 피부로 가꿀 수 있을 것이다.

변화를 느끼는 부위가 바로 눈가다. 눈가 피부는 매우 연약하고 얇기 때문에 전자 기기에서 나오는 빛이나 표정 같은 일상 속 작은 자극에도 주름, 칙색 등 노화의 징후가 빠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눈가 피부는 다른 피부보다 더 특별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디올 뷰티에서는 업그레이드된 디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세럼 드 로즈 어드밴스드를 선보인다. 노르망디 해안가 절벽에서 피어난 야생 장미 로즈 드 그랑빌의 꽃잎부터 열매, 줄기에 담긴 세 가지 강력한 힘으로 업그레이드된 세럼에 장미 꽃잎과 열매에서 추출한 22가지 마이크로-뉴트리언트 유효 성분과 장미 줄기 수액(기능별 분류한 로즈 드 그랑빌 성분들과 비교 시)을 농축한 강력한 포몰러를 진하게 담았다. 여기에 유효 성분 흡수율을 높이고 눈가 마사지를 도와줄 세라믹 마이크로-필 애플리케이션을 장착해 세럼을 바를 때 훨씬 더 감각적인 리추얼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10개의 세라믹 마이크로-필에 11번째 필을 더해 훨씬 업그레이드되고 완전히 새로워진 인체 공학적 애플리케이션은 피부에 마사지를 하는 순간 회전하면서 피부를 부드럽고 매끈하게 정돈해 주는 것은 물론, 자연스러운 마사지 효과로 눈가 붓기 완화와 혈행 개선을 도와 로즈 아이 세럼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디올 뷰티만의 장미를 다루는 노하우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담은 애플리케이션이 만나 지치고 예민한 눈가에 놀라운 변화와 생기를 선사한다.

## 로즈 앰플 세럼과 함께 스페셜 안티에이징 케어

아이 세럼과 함께 디올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라인의 대표 아이콘 디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필 드 로즈 어드밴스드 세럼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확실한 스페셜 안티에이징 로즈 리추얼을 경험할 수 있다. 로즈 드 그랑빌의 강인한 생명력과 22가지 미세 영양 성분을 1만여 개의 로즈 마이크로 앰플 캡슐에 담아낸 로즈 앰플 세럼으로, 디올의 첨단 피부 과학 기술을 반영했다. 오일의 풍성함과 세럼의 흡수력을 결합해 바르자마자 빠르게 흡수되어 촉촉하고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텍스처는 디올 프레스티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리추얼을 전달한다. 성분부터 기술력, 텍스처까지 완벽하게 탄생한 디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필 드 로즈 어드밴스드 세럼에 디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세럼 드 로즈 어드밴스드를 더해 빛나고 생기가 있는 피부로 가꿔보자. 문의 080-342-9500 **에티어 생원**

## 고귀한 이름 디올과 활력이

### 피어나는 눈가 피부

계절이 바뀌면서 가장 예민하게 피부



© sponsored by DIOR

# Lift Up

자연 유래 성분으로 누리는 정밀한 스킨케어.  
새로운 차원의 안티에이징 경험을 선사해줄 샤넬의 르 리프트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르 리프트 세럼 30ml 21만4천원,  
르 리프트 플루이드 50ml 20만4천원 모두 사넬 뷰티.

한번 늘어진 뒤 돌아오지 않는 모공에 요즘따라 더 늘어진 듯한 얼굴.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탁월한 성분과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을 좀 더 천천히, 이름답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뛰어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하는 샤넬 르 리프트 컬렉션은 천연 식물 성분을 엄선해 피부가 자극 없이 생명력을 되찾게 하고, 복합적인 노화 고민의 근본부터 예방해준다. 핵심 성분은 식물성 알팔파 농축물, 피부 리듬을 활성화 시켜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 속에서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함으로써 피부 밀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준다. 컬렉션의 주축이 되는 르 리프트 세럼은 노화 징후를 예방하는 식물성 알팔파 성분에 산화 메카니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블랙 페퍼민트를 배합했다. 특별 분자 설계물 통해 구현한 블랙 페퍼민트 PFA 콤플렉스가 피부 노화의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집중한다. 각종 오염 물질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피부에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 이는 산화작용을 일으켜 세포막과 DNA를 손상시키고, 기능을 떨어뜨려 노화를 앞당긴다. 블랙 페퍼민트 PFA 콤플렉스는 이런 산화 메카니즘에 대응해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를 보호한다. 여기에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을 조합한 포몰러가 피부에 오랫동안 수분이 머무를 수

있도록 지켜주고, 바이오폴리머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 피부를 탄탄하게 가꾸고 얼굴선을 또렷하게 정돈한다. 르 리프트 세럼이 피부 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면, 신제품 르 리프트 플루이드는 피붓결을 깨끗하게 가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제품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바로 산뜻한 수분감을 자랑하는 감각적인 텍스처. 특히 유분 생성이 활발한 지성 피부는 안티에이징 특유의 진득한 제형 때문에 사용을 머뭇거리는데, 이는 피부에 닿았을 때 과도한 유분을 생성시켜 트러블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런 피부 고민을 겪는 이들을 위해 샤넬이 고안한 것이 바로 르 리프트 플루이드. 햇볕에 말린 루쿠 씨앗 추출물을 함유해 과도한 번들거림은 잡아주고 피붓결을 깨끗이 정돈해준다. 피부의 피지를 잡아주는 덕에 피부 모공이 줄어들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공기처럼 가벼운 에멀션 타입으로 피부에 필요한 광채는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유분기는 잡아주어, 진득 예민했던 피부가 한결 편안해진다. 탄력을 부여하는 르 리프트 세럼과 촉촉함을 채우는 르 리프트 플루이드의 조합으로 단 한 달만 사용해도 놀라운 피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80-332-2700, www.chanel.com **에디터 이주이**

● sponsored by CHANEL

# Perfect Night Ritual

밤사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피부를 더욱더 활성화하는 라프레리 스킨 캐비아 나이트타임 오일.



● sponsored by la prairie



지구상에서 가장 진귀한 성분과 최첨단 과학기술이 탄생시킨 스킨 캐비아 라인. 1987년에 처음 등장해 프레스티지 뷰티의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 하우스의 시그니처 라인인 스킨 캐비아 컬렉션의 오랜 인기는 무엇보다 확실한 효과 때문인데, 단 한 번만 발라도 차원이 다른 독자적 스킨 캐비아 성분의 깊이와 순수성을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다. 올해 라프레리는 밤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집중 케어를 모색해 '스킨 캐비아 나이트타임 오일'을 출시하며 컬렉션의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신제품 스킨 캐비아 나이트타임 오일은 밤사이 피부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캐비아 성분과 레티놀을 담아낸 핵심 성분이 세심하게 작용해 밤사이 피부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돕는다.

### 깊은 밤 활성화되는 비밀스러운 힘

생물학적 주기에 따라 피부는 낮 동안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밤에는 생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 피부 탄력 증진을 위한 과정은 밤에 절정을 이루지만 피부 장벽 투과성이 높아져 보호 능력이 약해지고, 수분 부족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라프레리는 캐비아의 숨겨진 힘에 피부 탄력을 되살리는 것 이상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몰두했고, 밤사이 피부 재생에 효과적인 레티놀 성분과의 조화를 집중 연구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캐비아 성분과 레티놀이 완벽한 상관관계를 이루는 캐비아 결정체를 탄생시켜 신제품 캐비아 나이트타임 오일에 담아냈다. 캐비아의 퍼밍 효과와 레티놀의 효능을 결합한 캐비아 레티놀 오일이 보호막으로 작용해 밤사이 피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우며, 탄력 증진 효과를 한층 배가한다. 여기에 오일에는 처음으로 라프레리의 쉐루라 콤플렉스를 적용해 탄력을 끌어올리고, 활력과 생기를 더해 건강하고 이뽀다운 피부로 가꿔준다. 특히 레티놀은 빛에 취약한 성분이기에 빛 차단에 우수한 검은색 불투명 내부 용기에 담아, 최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배려도 돋보인다.

스킨 캐비아 나이트타임 오일의 효과를 더욱 집중적으로 느끼고 싶다면, 스킨 캐비아 제품과 함께 나이트 트리트먼트

리추얼을 완성하면 좋다. 먼저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스킨 캐비아 에센스-인-로션을 3~4방울 떨어뜨려 부드럽게 펴 바른 후 완전히 흡수시킨다. 다음 단계에서 강력한 퍼밍 효과를 선사하는 스킨 캐비아 리퀴드 리프트로 피부에 탄력을 채워준다. 이어서 스킨 캐비아 아이 리프트로 눈가 주변 피부에 생기와 힘을 부여한 후, 스킨 캐비아 나이트타임 오일을 사용해 리추얼을 마무리한다. 실기한 오일 포몰러가 수분을 보충해주고 보호막 역할을 해 밤 동안 깊은 수분감을 유지하게 해준다. 쉐루라 콤플렉스까지 담겨 있어 풍부한 영양분으로 가득 찬 텍스처가 빠르게 스며들어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며, 효과가 뛰어난 성분을 피부가 고루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이트 스킨 리추얼과 함께 충분한 숙면을 취한 후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확연히 달라진 피붓결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스킨 캐비아 나이트타임 오일 20ml 69만원대. 문의 02-511-6626 **에디터 이주이**

### 밤의료의 여정

라프레리 신제품 캐비아 나이트타임 오일 론칭과 함께 프랑스 디지털 아티스트 마오티(Maotik)와 조우해 탄생시킨 설치 작품 'Sense of Blue'가 라프레리의 예술적 스토리를 이어간다. 2021년 아트 바젤에서 공개할 예정인 이 작품은 작품 속에 숨겨진 모션 센서와 영상, 그리고 디지털 알고리즘이 만나 깊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라프레리 캐비아 나이트타임 오일 탄생 배경과 앞서는 밤의 속성을 탐구해, 초저녁에서 시작된 여정이 점진적으로 강렬해지며 창조성이 폭발하는 깊은 밤에 도달하는 여정을 표현했다. 해당 작품은 라프레리 홈페이지([www.laprairie.com/ko-kr](http://www.laprairie.com/ko-kr))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great wings

당신의 손목에서 날개가 되어줄 IWC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끊임없는 혁신과 독창적인 기술력에 최고의 정밀 기술과 독보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완벽에 가까운 워치메이킹을 선도하는 스위스 워치 매뉴팩처 IWC 스킨하우젠에서 출시한 IWC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항공 시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 파일럿 시계의 정석이라 불리는 이 워치는 크기, 기술, 디스플레이 등 다방면에서 파일럿 워치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을 품고 있다. 한눈에 많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직경 46.2mm의 큰 케이스 디자인을 적용하고, 눈에 띄는 블루 스테이 다이얼에 자리한 4개의 서브 다이얼에 알찬 정보를 담았다. 12시 방향에는 남반구 및 북반구의 퍼페추얼 문패이징이 표시되며 3·6·9시 방향 서브 다이얼에는 날짜, 월, 요일, 스물 세컨즈가 직관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7시 방향에는 4자리 연도 표시창까지 배치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퍼페추얼 캘린더는 최고 수준의 정교함과 섬세함을 자랑한다. 매월 달라지는 날짜 수와 윤년을 자동으로 계산하며 2100년까지 수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퍼페추얼 문패이징의 오차는 577.5년 동안 단 하루에 불과하다. 약 80개의 개별 부품으로 설계한 IWC 자체 제작 52615 칼리버의 캘린더 모듈은 자정에 모든 날짜 정보가 한 번에 전환되도록 구동한다.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크라운으로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파이어 글라스 케이스 백을 통해 정교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를 담은 듯한 블루 다이얼과 블루 카프 스킨 스트랩의 조화로 완성한 스포티한 디자인까지, 혁신과 높은 기술력의 만남으로 탄생한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퍼페추얼 워치의 매력에 빠져보자. 문의 1670-7363

스틸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 조합은 스포티함을 더했다. 직경 46.2mm 케이스에 더블 문패이징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날짜·요일·월 디스플레이까지 4개의 서브 다이얼을 장착했으며 4자리 연도 표시창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고안했다. 한 번의 섀프 와인딩으로 7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52615 칼리버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3천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IWC. 에디터 **상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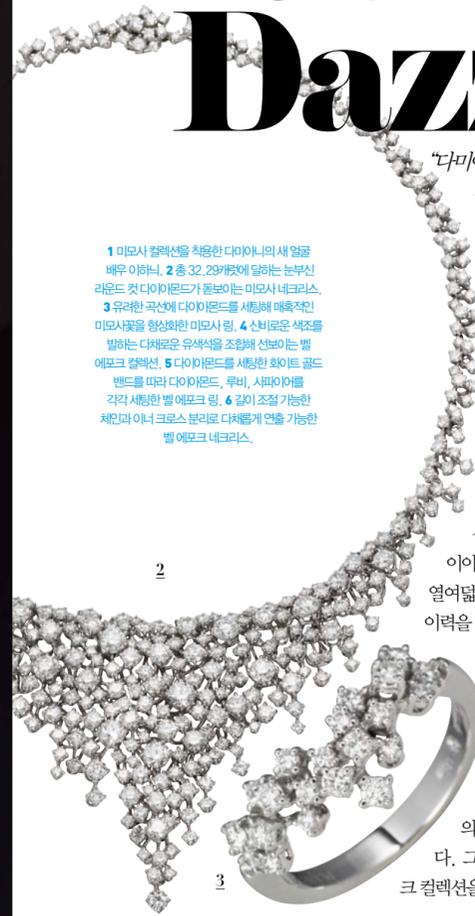
● sponsored by IWC

# Razzle Dazzle

“다미아니만의 섬세한 디자인과 오랜 정통성, 장인 정신에 깊이 감동했어요.” 이하늬

1 미모사 컬렉션의 착용한 다미아니의 새 얼굴 배우 이하늬. 2 총 32.29캐럿에 달하는 눈부신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가 돋보이는 미모사 네크리스. 3 유려한 곡선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매혹적인 미모사꽃을 형상화한 미모사 링. 4 신비로운 색조를 발하는 다채로운 유색석을 조합해 선보이는 벨 에포크 컬렉션. 5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밴드를 따라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를 각각 세팅한 벨 에포크 링. 6 같이 조절 가능한 체인과 이너 크로스 브리드 다채롭게 연출 가능한 벨 에포크 네크리스.

1924년 이탈리아 발렌자에서 탄생해 최상의 퀄리티와 진보적인 시각으로 주얼리의 근본적 가치를 다루는 다미아니는 이탈리아 특유의 섬세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미아니 인터내셔널 어워드에서 열여덟 차례나 수상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개인의 아름다움을 배가하는 다미아니 주얼리를 알리는 엠베서더의 일원으로 배우 이하늬가 합류했다. ‘우아함’이라는 공통점으로 이루어진 이 둘의 만남에서 이하늬는 다미아니의 남다른 품격을 알릴 예정이다. 그 첫 행보로 미모사와 벨 에포크 컬렉션을 착용했다.



## 눈부신 다이아몬드의 향연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디자인,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유색석이 완벽한 앙상블을 이루는 다미아니의 시그니처 미모사 컬렉션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미모사 꽃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주얼리에 담았다. 모티브를 교대로 세팅하는 다미아니 특유의 모자이크 기법을 통해 꽃의 섬세함을 표현한 주얼리는 착용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데, 다이아몬드의 정교한 반짝임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용감에서도 다미아니의 뛰어난 기술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비율과 균형, 입체적인 볼륨감에서 비롯된 눈부신 광채는 이하늬가 착용한 것처럼 셋업 슈트에서도 아름답게 빛을 발한다.

## 선과 빛, 색조가 이루는 미학

개인의 빼어난 매력을 극대화하는 벨 에포크 컬렉션은 19세기 후반 다채롭고 찬란했던 프랑스 파리 ‘벨 에포크’ 시대의 황홀함과 풍요로움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컬렉션이다. 기하학적 요소와 화려한 젤스톤의 대비로 매종을 대표하는 주얼리 컬렉션은 문자 그대로 좋은 시대라는 의미처럼 황홀하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한다. 유려한 골드 주얼리 위에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가 매혹적인 대비를 이루며, 독보적인 개성을 드러낸다. 젠타리스 피스 네크리스, 링, 브레이슬릿, 이어링 등 모든 라인업이 성별에 관계없이 사랑받는다. 네크리스의 경우 이너 크로스를 분리할 수 있어 부티크를 방문하지 않아도 스타일링 변수가 가능하고, 체인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단독으로 착용하거나 레이어드를 통한 다양한 연출 또한 가능하다. 문의 02-515-1924 **에디터 이주이**



# Luxe one

좋은 성분에 정성을 더하고, 과학으로 마무리했다.  
올가을 보습과 영양을 책임질 프리미엄 크림.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슬리 수프리미아 보모** 특허 받은 시슬리의 휘도 광활레스 LC12는 식물에서 추출한 강력한 활성 성분이 세포를 온전하게 유지시켜줘 낮에 발생한 피부 손상을 케어하고, 또다시 반복될 피부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무엇보다 피부를 재건하고 진정시키는 오일과 버터 성분을 함유해 건조 및 약한 피부를 보호하고 영양과 수분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50ml 82만원, 문의 080-549-0216

**랑콤 압슬루 엑스트레 크림** 2백만 개의 장미 줄기 세포를 농축해 피부 모약이라는 별명이 있는 제품. 2만여 종의 장미를 조합해 탁월한 활력, 생기, 적응력을 지닌 특별한 장미만 엄선한 후 그 줄기 세포를 추출해 그대로 담아낸 기적의 크림이다. 피부에 닿는 순간 스스로 녹아들며 흡수되어 피부 깊숙한 곳까지 도달한다. 50ml 58만원대, 문의 080-022-3332

**라프래리 플라티늄 레이 오트 레주베네이션 크림** 피부결 정돈, 보습 및 광채 향상, 피부의 건조함과 탄력 개선을 도와주는 크림. 새로운 플라티늄 멀티 펩타이드와 독자적인 펩투라 콤플렉스로 더욱 강력한 플라티늄 레이 오트-레주베네이션 포뮬러는 선순환 레주베네이션 루프를 만들어 상 호 연결된 레주베-10 팀 네트워크 프로세스를 돕고, 피부 본연의 건강한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50ml 가격 미정, 문의 02-511-6626

**데코르테 AQ 밀리오리터 인텐시브 리제-유에이빙 멀티 크림** 데코르테 연구력의 결정체로 베너후 우기 추출물, 자작나무 수액, 흑대추 추출물 등 진귀한 성분을 배합했다. 주름 개선과 리프트 윤기, 그리고 보습에 탁월한 재함을 스페츨리로 진주알 크기만큼 넣어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퍼바른 후 양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끝자유폴리드 마사지를 해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45g 1백50만원대, 문의 080-568-3111

**스위스 퍼펙션 셀룰라 퍼펙트 리프트 아이 크림** 셀룰라 액티브 아이리시사<sup>®</sup>, 미세 조류 추출물, 펩타이드 등의 활성 성분이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를 강화해 매끄럽고 생기 있는 눈가로 바꾸어준다. 크림 재질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수분을 전달하고 광채까지 더해주는 건 덤. 15ml 55만5천원, 문의 051-745-1202

**샤넬 수벨라미지 엑스트레 드 크림** 전세계 1백17종의 바닐라 중 샤넬 연구사가 엄선한 바닐라 플라니콜라이드의 활성 성분을 담았다. 강력한 트리트먼트 파워를 지닌 크림으로, 피부 재생과 회복, 보호 효과를 발휘한다. 가볍고 산뜻하며 크리미한 재질이 빠르게 흡수되어 충분한 휴식을 취한 듯 에너지를 꼭 채운 피부로 되돌아온다. 50ml 68만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장미윤**

# especially for you

다가올 명절을 맞이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선물을 소개한다. 집에서 편리하게 고주파 관리로 피부 탄력을 케어해줄 실크 페이스타이트3.0.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소중한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집에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는 어떤걸? 실크 페이스타이트는 집에서 고주파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피부 속 탄력을 채우고 주름 및 리프팅에 도움을 주는 바이폴라 고주파 에너지(RF)와 플라센 생성, 피부 톤 개선에 도움을 주는 LED 레드라이트, 그리고 이 LED 레드라이트를 피부 속 진피층까지 도달시키는 열 에너지(RI)까지,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해 떨어진 피부 탄력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킨다. 특히 이중 터, 입가 찡자 주름, 잔잔적인 피부 톤과 결 등 유난히 탄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기에 이상맞춤이다. 또 피부과에 가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고, 화장실만으로는 어디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이보다 좋은 대안은 없을 듯하다. 올해 출시한 실크 페이스타이트3.0은 이전 페이스타이트2.0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해 유·무선 듀얼 사용이 가능하다. 제품 디자인 또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관리하기 편리한 것은 물론, 은은한 로즈 골드 라인의 디자인은 집 안 어디에 두어도 이질감이 없다. 또 최근 피부과에서 3대 리프팅 시술로 손꼽히는 인모드 레이저 리프팅 기기 역시 실크의 계열사 인모드사의 제품, 효능과 효과 면에서 믿음 이 가는 이유다. 병원용 장비 회사의 기술력과 가정용 피부 관리 의료 기기의 기술력이 만나 탄생한 탄력 케어 고주파 마사지기 실크 페이스타이트3.0은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피부 탄력을 증진시키는 것뿐 아니라 건강한 피부를 원하는 이에게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에디터 상영민**

● sponsored by silk'n

# editor's Pick

계절의 변화에도 끄떡없이 건강한 피부를 위한 아이템. photographed by jeong jin you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닥터지 하이드라아쿠아 에센스핏 마스크 117지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 좁은 틈까지 침투해 수분을 총총하게 채워주고, 17가지 아미노산이 보습력을 향상해 수분 지속력을 높여준다. 주말 야외 활동으로 지친 피부에 한 번만 사용해도 끈적하고 촉촉한, 알도 높은 수분 케어를 받은 듯한 느낌. 필요일 아침 피부가 확실하게 달라진다. 100원 4만원. 문의 1811-9415. *by 에디터 장민준*

**보이테 루주 메이크업 에센스 209 아쿠아** 입술을 뜯는 버릇이 있어 메이크업은 물론 보습까지 챙겨줄 립 제품들이 필요한 참.. 이 제품을 만나. 썬케어 젤 제형의 립글로스로 조각적으로 입술을 촉촉하고 편안하게 하여 클링 민트 향 오일을 함유해 입술 볼볼이 살아나는 플럼핑 효과까지 준다. 8ml 5만8천원. 문의 02-310-5025. *by 에디터 장민준*

**제이알 리켓 티트리 & 헵프오일 포뮬러 샴푸** 바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프리 대체에 합류해본다는 일로 샴푸 바 찾기에 몰입했다. 최근 발견한 이 샴푸 바는 다른 대체 바보다 즉각적으로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주는 것이 마음에 쏙 들었다. 영종 안 화에 좋은 티트리를 함유한 제형으로 지성 두피의 트러블 방지 효과도 있어 만족. 99g 1만2천원. 문의 070-8880-4989. *by 에디터 장민준*

**LG 프라엘 토날 타이틀 업케어** 고주파, LED, 미세진류 등 페이스 라인 관리에도움을 주는 복합 탄력 기기. 세안 후 수분 젤 크림을 듬뿍 바르 후 신드림에 맞춰 페이스 라인을 따라 속속 밀어 올려주면 초단간 케어 원료 이중같이 피부 관리실 방문이 망설이게는 때 집에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 유용하다. 59만9천원. 문의 1544-7777. *by 에디터 장민준*

**에스티 로더 데어웨어 슈어 롱 웨어 메이크업 #1W1** 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인지 파운데이션은 썬지 무겁고, 베이스온론 카운터이 아쉽게 느껴지는 요즘. 수직과 시야 추출물을 불만족한 수분 텍스처가 피부에 가볍고 투명하게 밀착해 자연스러운 카운터를 제공하는 이 제품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의 욕구를 100% 충족시킨다. SPF 20 PA ++의 자외선 차단 효과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갖췄다. 30ml 7만원. 문의 02-6971-3212. *by 에디터 장민준*

**나스 클리닉스 리프트 아이리너** 인스클리닉에 붙어 에디터에게 아이리너나 그라틴 세안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아이리너는 아래는 단단하고 끝으로 갈수록 날렵해져 한 손으로도 일은 리프트부터 두손으로 리프트까지 한 번에 그럴 수 있다. 빨리 마르는 포뮬러 덕분에 건조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번짐 없는 눈매를 연출한다. 0.4ml 4만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장민준*

**리퀴티드 트리피닉 샴푸** 건조한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피부만이 아니다. 두피가 건조해지면서 고스란히 모발로 나타나는 결과는 끝이 갈라지거나 바스락거림, 그리고 탈모 우려 7세대 리뉴얼을 거쳐 선보인 트리피닉 샴푸의 핵심 성분을 함유한 이 샴푸는 브라질 인삼과 더불어 아미노산과 식물 추출물인 파파이 성분을 함유해 두피 관리에 효과적이다. 200ml 2만8천원. 문의 1899-4802. *by 에디터 장민준*

**스위스 퍼펙션 셀룰라이드와 라피라미 크림** 두꺼운 스킨케어는 지용하는 편. 크림은 무조건 흡수가 빨라야 보습도 잘되어야 한다. 스위스 퍼펙션 제품은 보습과 미마 관직임 없이 보습력 같은 마무리감을 제공하면서 피부가 건조하거나 말라지 않아 만족. 알주일 정도 사용하니 피부 장벽이 한층 더 강화되어 건조해진 듯했다. 30ml 3만8천원. 문의 1644-4490. *by 에디터 장민준*

**셀화수 자음생크림 #클레시** 인삼 에-치를 두터 6천 배로 고농축한 진세노믹스를 담은 탄력 크림. 영장강 남자는 꾸덕꾸덕한 텍스처가 피부에 부드럽게 밀려 보습막을 생성한다. 듬뿍 바르고 꼭 지고 일어나면 피부 갈수록 굵아터 탄탄하게 차오른 볼륨감을 느낄 수 있다. 60ml 27만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장민준*

**디올 뷰티 미스 디올 오드 퍼퓸** 플리워 부케를 한여름 안은 듯 로즈와 아이리스. 은 방울꽃으로 이루어진 생기 넘치는 향기가 가득 느껴진다. 야에 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주는 신드림과 톱카 빈, 비날라를 조합한 오드 노트가 차분하고 관능적인 여운을 남긴다. 50ml 16만3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장민준*

**클레어보 보메 하이드로 스프트닝 로션** 외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황금 추출물을 함유했다. 촉촉한 워터 타입으로 끈적이지 않아 무겁지 않은 것도 장점. 프랑스 알라스트라피티 일렉스 올베라 미린 플라제와의 합점으로 완성한 리피티드 에디션 케어까지 완성했다. 170ml 15만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장민준*

**샤넬 뷰티 레베퀴 워터-프라이 블러셔 #정경스 코랄** 궁극적 가볍고 끈적임 없이 워터 타입 블러셔로 피부가 터짐 블러셔는 행지 건조하고, 크림 타입 블러셔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아들을 위한 이상적인 아이템이다. 순가적으로 가볍게 두드러진 미네랄 보습과 수분이 불만족하면서 컬러 피드백을 토대로 수채화처럼 맑은 샵을 부여한다. 여러 번 덧칠해도 끈적임 없이 피부에 책 밀착된다. 15ml 6만8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장민준*

**구찌 뷰티 알케미스트 리네 1921** 탄생 1백 주년을 맞아 1921년을 기념하는 구찌의 오드 퍼퓸. 네덜란드 왕과 베네치아의 우정, 그리고 오코르스의 풍성하고 농밀한 향들이 섞여 휴과 초목의 목직향한 감칠맛이 살짝 남상하기도 하다. 계절을 막론하고 클래식 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100ml 44만원. 문의 02-3452-1921. *by 에디터 장민준*



# SHOWROOM

## FASH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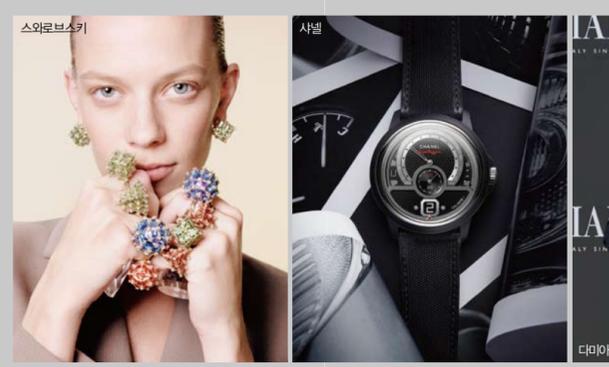
**디올 F/W 레디 투 웨어 컬렉션**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야 그라치아 치우리는 2021~2022 F/W 레디 투 웨어 컬렉션에서 동화적 세계를 탐구했다. 장난감 병정의 유니폼을 재해석한 레드와 화이트 터치로 장식한 코트, 동화 (빨간 모자)의 소녀가 입을 법한 후드가 달린 재킷 등 다양한 아이템을 재조명해 눈길을 끈다. 문의 02-3480-0104



**돌체앤가바나 3.5 백** 돌체앤가바나가 클래식한 편지 봉투 세이프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백을 출시했다. 미니 사이즈 핸드백 측면 두께가 3.5cm인 데서 3.5 백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다양한 디자인, 소재 및 컬러로 출시해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다. 문의 02-2092-6643



## JEWEL & WATCH



**스위로브스키** 큐리오사 브랜드 최초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오버나 영겔베르가 선보이는 컬렉션 원의 13가지 패밀리 중 하나다. 기하학적 구조 속 완벽한 비율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으며, 입체적인 큐브, 피라미드 또는 구 형태의 아이링과 각테일 링으로 선보인다. 정교한 카팅과 패턴이 모던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준다. 문의 02-6402-1725

**스위로브스키** 무수 슈퍼레제라 에디션 워터 포 맨 샤펬은 2005년 출시한 J12 슈퍼레제라와 5년 전 소개한 무수 워터로 샤펬 남성 워치의 새로운 정을 열었다. 경주용 자동차의 속도에서 영감을 받은 스포티브 디자인이 돋보이며, 지름 42mm 케이스와 블랙 니켈 마감의 매트 블랙 기요세 다이얼, 블랙 니켈 스트랩이 남성적인 매력을 강조한다. 문의 080-200-2700

**다이아니 국내 앰배서더 이하늬 선정** 다이아니가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의 배우 이하늬를 국내 앰배서



**리프래리 스킨 케어 나이트타임 오일** 생기를 잃어 가는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나이트 케어 제품을 출시했다. 레티놀과 케어 성분인 만나 탄력·주름 개선 효능을 발휘하고, 밤사이 수분 장벽을 생성해 피부를 보호해주며, 활성과 생명이 작용하게 도와준다. 문의 02-511-6626

**스위스 퍼펙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단독 매장 오픈** 서울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독 매장으로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서 만날 수 있다. 럭셔리 스위스 캔케어 브랜드의 아이텐타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설명을 들으며 제품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문의 1644-4490



**스위로브스키** 큐리오사 브랜드 최초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오버나 영겔베르가 선보이는 컬렉션 원의 13가지 패밀리 중 하나다. 기하학적 구조 속 완벽한 비율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으며, 입체적인 큐브, 피라미드 또는 구 형태의 아이링과 각테일 링으로 선보인다. 정교한 카팅과 패턴이 모던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준다. 문의 02-6402-1725

**스위로브스키** 무수 슈퍼레제라 에디션 워터 포 맨 샤펬은 2005년 출시한 J12 슈퍼레제라와 5년 전 소개한 무수 워터로 샤펬 남성 워치의 새로운 정을 열었다. 경주용 자동차의 속도에서 영감을 받은 스포티브 디자인이 돋보이며, 지름 42mm 케이스와 블랙 니켈 마감의 매트 블랙 기요세 다이얼, 블랙 니켈 스트랩이 남성적인 매력을 강조한다. 문의 080-200-2700

**다이아니 국내 앰배서더 이하늬 선정** 다이아니가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의 배우 이하늬를 국내 앰배

## BEAUTY



CHANEL